

李 明 子 嬪



이 명 자 훤출한 키, 후리한 몸매에 항상 밝게 피워 있는 웃음은 보는이로 하여금 언제나 흐뭇한 마음을 갖게 한다. 전남 강진이 고향인 양은 전남여고를 거쳐 梨花女子大學校 도서관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수재다. 도서관 학과 제일회 졸업생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학의 초창기로서 도서관학이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을 때다. 이양이 도서관학을 전공하게 된 동기가 미국에 유학하고온 이모부의 영향이라고 하나, 아마도 어릴때부터 남다른 창의력을 보인 양으로서는 새로운 학문을 개척해 보고싶은 욕망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하게 된상 싶다.

이양이 서울대학교와 인연을 맺은지도 벌써 6년이 다 되어 온다. 도서관학과를 졸업하는 바로 그해부터 줄곳 중앙도서관에서만 근무하여 그동안 남모르는 많은 업적을 남겨놓았다.

그동안 주위 사람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부족과 그렇게 적은 보수로서도 이토록 오래도록 자기의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정리실과 수서계에서 줄곳 여자로서는 감당키 어려운 중책을 맡아 무난히 일해온 자로서, 단연 존경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명동 칫과병원을 경영하든 李相奎씨의 長女로서 태어나 부친의 납북후 줄곳 어린 동생들의 뒷바라지 까지 하면서도 언제나 밝게 웃으며 살아온 고운 마음씨의 소유자. 처음에는 Designer 나 교직자가 되기를 희망했다는 이양은 그만큼 도서관에서 꽃을 가꾸는 마음으로서 일해왔다. 이제 도서관학도 예년보다 많이 발전했고 후배들도 많이 배출되어 마음 든든하다는 양은 번잡하고 화려한 사교보다도 조용히 고전 음악을 즐기는 게 취미란다. 올해 총장상 까지 받은 이양은 아마 머지않아 곧 결혼을 하게 될것이지만 우리 도서관으로서는 되도록이면 그가 오래오래 도서관을 위해서 보다더 일해주었으면 하는 소망 간절하다.